

lemontree

STYLISH LIVING MAGAZINE

LIVING

디자이너 피에트로 루소의
밀라노 15평 아파트

레이저 커팅으로 완성한
프레임 없는 거울

TASTE

차약 세계의
샤넬 vs. 유니클로

쇼핑의 갈림길
아케야 vs. 한샘



DESIGNER HOUSE

피렌체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된 피에트로 루소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에로 리소니 스튜디오에서 10년간 일하며 실무를 익혔고 이후 다양한 가구 브랜드와 협업을 해왔다. 현재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그는 작년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서 지오메트릭 모티프의 조형적인 가구 디자인을 선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피에트로 루소가 고친 집 · 1 15평 스튜디오 아파트

연극에서 주인공의 인생을 집약한 무대는 픽션일 수밖에 없지만 실제 인생의 무대가 되는 집은 온전히 그 사람을 담아내는 픽션이 되어야 한다. 무대미술가로 시작해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피에트로 루소는 이러한 자신의 철학을 50㎡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 자유롭게 담아냈다.

기획 | 이정연 컨트리뷰팅 에디터 | 사진 | Filippo Bamberghi





코끼리 벽화의 오른쪽 수납장 도어의 그림 모두 피에트로가 그렸다. 코끼리 얼굴 아랫부분에 설치한 선반은 테니스 라켓을 응용한 것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과일 바구니로 활용하는 데 그만이다.

의외의 곳에서 찾아내는 남다른 디자인 모티프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으로 거실과 주방, 딱 두 공간밖에 없는 스튜디오형 아파트. 구조적 미학을 다루는 독보적인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어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피에트로 루소의 능력과 열정을 감안하면 이 집은 그의 삶을 담기엔 너무 작은 무대가 아닐까 싶었다. "오히려 한정된 공간에 체 실에 필요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이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죠." 밀라노 시내 한적한 주택가, 1930년대에 지은 작고 좁은 아파트를 본 순간 피에트로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흥미가 생겼다. "가능성보다는 한계가 많은 공간이었죠." 가로로 길고 폭이 좁으며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 피에트로가 찾은 결정적 단서는 가구였다. 최대한 바닥과 천장 사이를 비워야 공간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키가 크고 부피가 큰 옷장이나 수납장이 들어온다면 그 위치가 어디든 실내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출발점은 가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로 긴 벽면을 따른 수평적 형태와 벽면 전체 높이를 꽉 채우는 수직적 디자인. 이 두 가지 극단적 스타일이

유일무이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죠." 과연 피에트로의 판단은 옳았을까? 우선 거실을 둘러보니 모든 가구는 원래 이 집을 위해 존재한 듯 딱 맞는 비례와 구도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조화미가 돋보인다. 브라스로 만든 기하학적 조형미가 트레이드마크인 피에트로의 수직형 수납 선반 '볼리에라(Volera)'는 오래전부터 체자리에 있었다는 듯 창가 코너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낮고 긴 수평 구조의 브라운 컬러 USM 모듈 수납장은 고풍스러운 벽면과 패턴 타일 바닥과 색상이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지면서 공간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거실은 직접 만든 가구와 갖고 있던 것 중 비례에 맞는 것을 조합한 결과예요. 천장까지 뻗은 수납 선반은 돌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 모듈을 길게 연결한 스토리지는 벽을 많이 가리지 않아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었죠." 구도와 비례 그리고 색깔까지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거실은 어느새 한 폭의 구상화처럼 다가온다. "어쩌면 그 표현은 벽면에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가구가 놓인 벽면은 페인트를 긁어내면서 이전에 칠했던 색상과 패턴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살린 벽화니까 말이죠!"





1 수공예가이자 화가였던 피에트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익숙하다고. 2 무대미술을 배우면서 원근법과 같은 도상학에 심취했던 그는 이를 제품 및 가구 디자인에 응용, 지오메트릭 형태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만들었다. 또한 공예가로서 브라스, 글라스 등의 소재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그는 이런 전통 재료를 사용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가구와 소품을 만들고 있다. 수납장 위에 놓인 7각형의 조명 '오토(Otto)'와 코너에 설치한 수납장이 피에트로의 대표작.





1 실용성을 강조한 주방 가구는 모두 피에트로가 만들었다. 주방 가구 프레임 및 도어는 철제, 작업대 상판은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손잡이는 벽에 설치하는 옷걸이 후크를 용도 변환해 쓴 것. 2 주방 가구를 하나씩 모듈화해서 만든 가운데 창가 쪽 작업대는 그 자체가 도마와 칼꽂이가 되는 일체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 물론 도마도 툴튼하게 쓸 수 있는 원목으로 제작했다. 3 너무 좁아서 마치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같이 느껴지는 욕실. 그러나 피에트로는 여기에 꼭 콘크리트로 만든 세면대와 아날로그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싶었다고. 이를 제작하느라 오랜 시간과 엄청난 고생이 뒤따랐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어 좋았다고. 수도꼭지 특성상 찬물과 따뜻한 물이 함께 나오는 일체형이 아닌바, 이는 그가 라이프를 연결해 보완했다.

상대적인 미학으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다

거실이 이 집의 전동미를 살린 스타일이라면 주방은 그의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과 화이트 있는 내면을 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테이블 세트를 제외한 모든 것은 피에트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 그중 스틸 프레임에 콘크리트로 상판을 만든 싱크대는 그가 즐겨 하는 요리를 위해 작업대처럼 만든 것으로 여느 주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아일랜드 같은 넓은 작업대가 필요했지만 이는 식탁에 양보했어요. 대신 아일랜드 식탁을 일렬로 늘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주방 가구 모듈이 곧 작업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주방 반대편 다이닝 룸에는 예술가인 피에트로의 진면목이 깃들여 있다. 무대미술을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짐작되는, 실제 크기에 준하는 코끼리를 벽면 가득 그려 넣은 과감한 표현이런! 게다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벽화는 이 작은 공간을 단숨에 신화 속으로 순간 이동시킨 듯 신비로움마저 선사한다. 또한 이웃한 벽면에 자리한 수납장 도어에 그려 넣은 원형의 물고기 때 그림은 심해를 부유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지나. "코끼리와 물고기는 순수 회화로 보면 동심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콘크리트와 스틸로 만든 주방 가구를 고려해보면 특히 코끼리 벽화는 이곳을 밝혀주는 컬러 요소가 되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겸손한 표현은 웬지 그림에 대한 긍증증을 더 증폭시킬 뿐. 피에트로가 벽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코끼리와 물고기 그림을 동시에 보면 마치 서커스단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코끼리와 물고기는 각각 진중함과 가벼움을 뜻해요. 어려서부터 했던 고민 중 하나가 우아함과 유치함의 차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요즘 제가 인식한 것은 이 둘이 때려야 떨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 법. 피에트로가 인지하는 클래식과 키치는 코끼리 벽화와 물고기 그림을 함께 봤을 때 뜻하지 않은 서커스단의 풍경을 느끼는 원리와 같을 게다. "앞으로 우아함과 유치함, 양쪽에서 가지 있는 것을 찾아 화이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미 제 인생의 무대에 이렇듯 하나하나 깨닫는 것을 솔직하게 펼쳐내고 있으니 말이죠. 과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그랬듯 세련된 은유법으로 긴장감 있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피에트로 루소가 고친 집·2

밀라노 패션 사진가의 아르누보 하우스

컨템퍼러리한 세련미가 있지만 이내 피렌체에 있는 어느 귀족 집을 찾은 듯
고풍스러운 품격이 느껴지는 집. 포토그래퍼 아드리아노와 그의 아내 실비아
그리고 갓 태어난 딸까지 세 식구가 사는 이 경이로운 보금자리는
아드리아노와 감성 유전자를 공유한 그의 형 피에트로가 디자인했다.

기획 이경민 컨트리뷰팅 에디터 사진 Filippo Bamberg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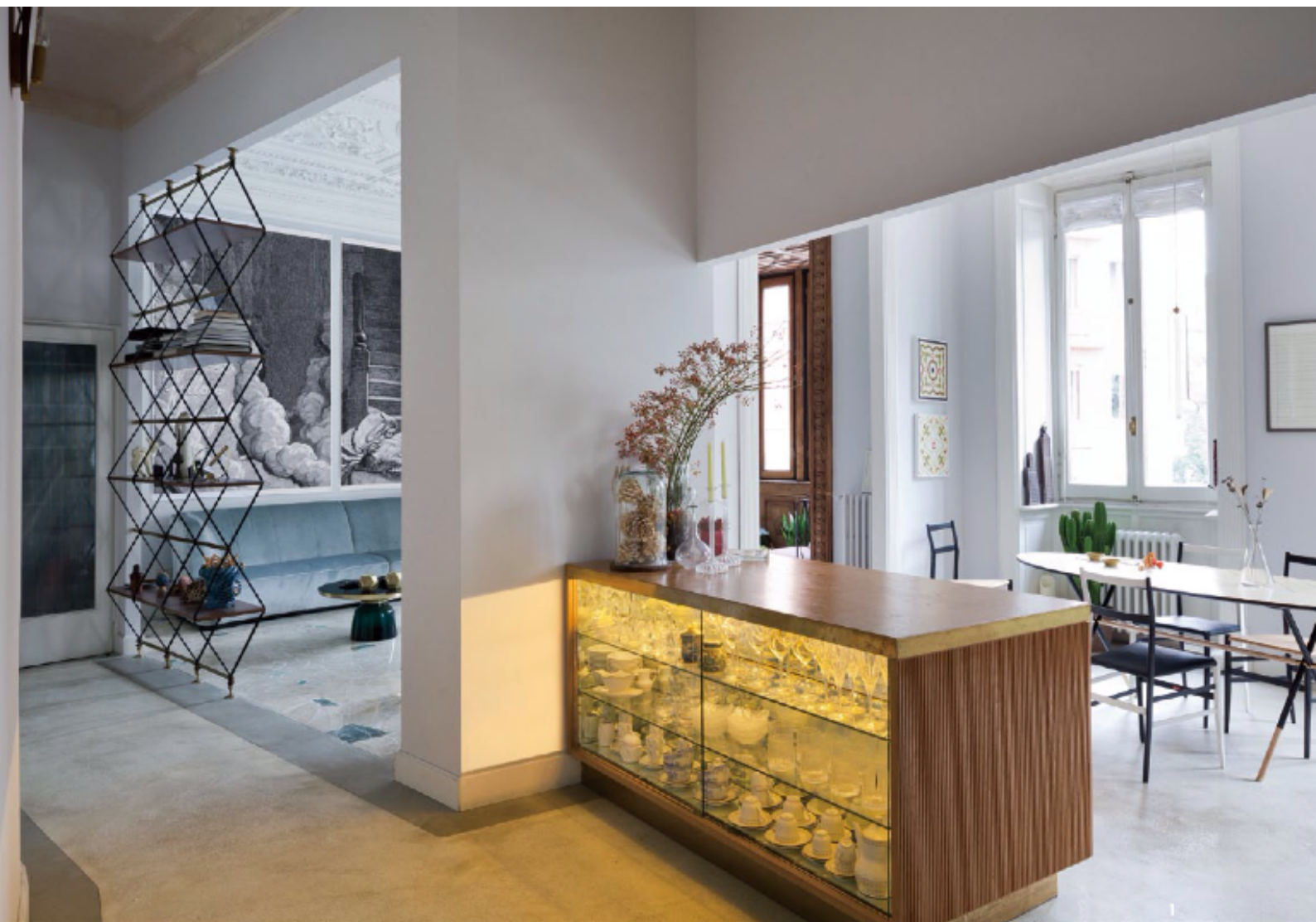


아드리아노·실비아 루소 부부 그리고 딸, 세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공상과학 영화 속
광선검처럼 생긴 조명은 피에트로 루소가 유리과 브라스로 만든 LED 조명 '아폴로',
소파는 이탈리아 소파 전문 브랜드 폴레스폴의 기본형 디자인, 조명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중 모양의 테이블은 세바스티안 헤르크너(C자원의 '벨사이드 테이블&커피
테이블' 세트, 고딕 회화를 모티브로 풀어낸 대형 그림 작품은 피에트로의 친구이자
다양한 디자이너와 작가의 작품을 소개, 판매하는 단테-굿즈&베드(Dante-Goods
and Beds)의 설립자인 아틸레(Aylin Langreuter)가 만든 것이다.



이르누보 양식의 백미를 보여주는 내담이장. 활 모양으로
생긴 창문은 실내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한편
그대로 보존된 가운데 세월의 무게로 짙어진 우드 마감
재질을 보호하기 위해 표면은 고담 처리했다.





공간 고유의 아우라가 있는 집을 만든다

“모든 집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집을 택할 때 특정한 스타일을 찾기도 하지만 공간을 보고 내가 그곳에 대해 무언가 설명하고 싶어지거나 그 공간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압도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찾고 향유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가구 디자이너인 피에트로 루소(Pietro Russo)는 지난해 ‘드디어’ 클라이언트인 남동생의 집을 완성했다. 꼬박 1년여의 시간을 들여 바닥부터 싱크대, 조명과 세면대 등 모든 것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시공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일 터. 하지만 이에 대해 동생 아드리아노(Adriano)와 그의 아내 실비아(Silvia)는 불평 한마디 없었던단다. “처음 집을 구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제가 형에게 함께 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이 집도 형과 함께 찾은 것인데, 재미있게도 이 집에 반한 포인트가 똑같았어요.” 이탈리아 롬 패션 포토그래피이자 ‘보그 0’ 이탈리아에서 매달 멋진 화보를 선보이는 아드리아노, 형제가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감성적인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에 집을 보는 시각 또한 남달랐다. “우리가 이곳을 낙점한 건 바로 내닫이창(Bow window) 때문이죠.”

아드리아노의 아파트는 192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경관은 벽돌, 아치형 창문 그리고 아파트 내부 벽면의 섬세한 조각 장식 벽화 등 아르누보 스타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덕분에 이 건물은 수백 년 역사에 빛나는 건축에 익숙한 밀라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장엄하게 느껴질 만큼 기품이 돋보인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닌 아우라에 비하면 실내는 아쉬운 점이 있었죠. 거실 자체는 신비로운 음색이 전해지듯 옛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전에 살던 이가 공간을 나누기 위해 벽을 만들어 긴 복도를 냈고, 이 때문에 복도 이면은 빛이 들지 않아 무척 어둡고 비좁게 느껴졌죠.” 아파트 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신이 집 안에도 존재할 거라 생각한 형제는 외관이 지닌 아우라를 집 안에 현재적 시점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실제 아파트를 지을 당시 건축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되짚어보며 개조를 진행한 아드리아노는 그 옛날 석수가 돌을 고르고 다듬고 쌓아올리듯 자신의 모든 오감을 총동원해 과거와 현재가 우아하게 만나 자유로운 개성을 뽐내는 독보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1 기존의 복도 벽을 허물고 거실과 주방에 각각 큰 개방형 출입구를 만들어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효과를 얻었다. 벽면을 대신해 거실과 복도 사이에는 피에트로가 만든 책장 겸 파티션을 두었고 주방과 복도 사이에는 아일랜드 식탁을 겸하는 그릇장을 제작해놓았다. 특히 그릇장은 실비아의 그릇 컬렉션이 장식 효과를 말할 수 있도록 유리 도어를 달고 조명을 넣어 쇼케이스 겸 복도를 비추는 조명으로도 활용된다. 2 한편에서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보이는 전경 높은 천장의 오래된 벽도 마감을 그대로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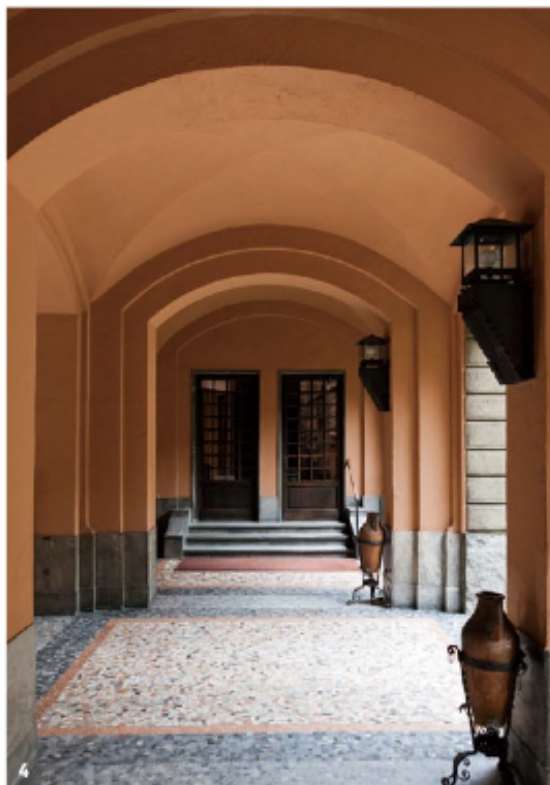
다이닝 룸과 주방 사이에는 문을 없앤 출입구를 만들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나뭇잎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미가 돋보이는 다이닝 테이블 'Tavolo Piuma'와 유리 펜던트 조명 'Scintilla'는 피에트로 루소 디자인, 의자는 지오 폰티 디자인으로 까시나에서 구입한 것이다.





오래된 것의 미래, 현실 공간으로 끌어들이다

'세것은 오래된 것에서부터 온다.' 피에트로가 동생의 집을 개조할 때 세운 목표는 이렇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운명처럼 보였던 내달아창 공간과 천장의 벽토 마감을 그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간 구조 또한 원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실내를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긴 복도의 벽을 없애고, 복도에서 각각 거실과 주방으로 연결되는 큰 개방형 입구를 만들었다. 덕분에 거실과 주방은 벽으로 막혀 있던 복도 공간까지 고유의 영역을 되찾으며 밝고 탁 트인 스케일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실은 내달아창 부분의 고풍스러운 우드 패널 장식과 고전적인 천장 때문에 클래식한 운치가 잘 드러났지만 실용적으로 사용했던 주방은 상대적으로 모던한 느낌이 강했다. 피에트로는 그 간극을 이어주는 접점을 찾기 위해 거실을 컨템퍼러리한 클래식 디자인으로 연출하기로 했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마감재와 오브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엮어봤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깨서 이를 맞춘 듯한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세월의 더께로 질어진 창가의 우드 벽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되 이를 한층 절고 세련된 느낌으로 만든다. 화려한 조각 장식의 천정은 고딕 세밀화를 모던 아트로 재해석한 대형 그림 작품과 짝을 이루며 마치 성가라도 울려 퍼질 듯 시공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반면 주방은 싱크대와 수납장 등을 모두 공간의 일부가 되도록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는데 마감재를 고전적인 소재로 선택함으로써 클래식한 무게를 더해 거실과의 균형을 꾀했다. "여기서 새로운 마감재를 사용하는 모험도 감행했습니다. 기둥과 같은 벽면을 활활 태운 불박이 수납장은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오리지널 벽토 마감과 잘 어우러지는, 알게 발리는 특수 시멘트로 처리했는데 도어를 알게 표현하면서 내부 공간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다양한 재료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피에트로의 장점은 부엌 가구를 제작하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우드와 블랙 대리석, 동을 사용해 1930년대 직선형의 육중한 모던 클래식 가구의 품격을 지닌 싱크대와 식기장을 만들으로써 이 집에 원래 있었던 듯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공간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 동생 아드리아노는 이 모든 것이 형, 피에트로에게 가능한 것이라 치켜세웠다. "형은 디자이너이기 전에 공예가이자 예술가예요. 석공이었던 아버지 영향으로 목공, 조각, 금속공예, 회화 등을 몸소 익혔거든요." 물성에 대한 이해, 공간감에 대한 접근이 남다른 피에트로의 능력은 동생의 집에서 '종합예술'로 피어났고 그의 감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유하는 동생 아드리아노의 가족은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집에서 사는 궁극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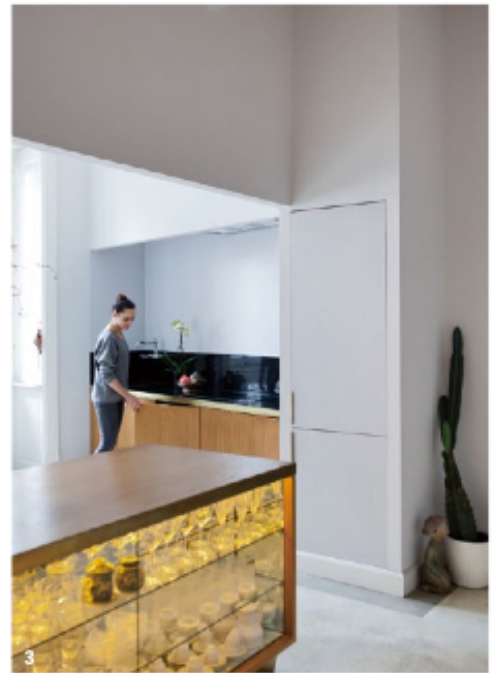
1 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채광이 밝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테라스에 놓인 디자인 풀이다. 식사와 티타임 때 그리고 부부의 홈 오피스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고. 2 이파트 내부 계단 벽면도 아름다운 벽토 장식이 예전 그대로 남아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그 정취를 만끽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재미. 3 외부에서 바라본 아드리아노 아파트의 이치할 유리창, 벽돌과 아치 부분의 섬세한 조각 장식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4 이파트 건물 현관은 화랑 형식으로 되어 있다. 5 두 층짜리 한눈에 반한 내달아창의 외관.





복도 끝에 자리한 부부 침실. 문이 있는 쪽의 벽면은 모두 풀빅이장이다. 풀빅이장의 네 모서리는 모두 구릿빛 스틸로 마감해 클래식한 감각을 더했고, 조명은 디자이너 콘스탄스 기세(Constance Gisse)의 '베르티고(Vertigo)', 풀빅이 옷장과 걸러가 잘 어울리지는 않더라도 모로소-디젤 컬렉션이다.





1 작년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피에트로 루소의 책장 걸 파티션 'Libreria Romboidale'를 기실과 복도 사이에 놓아 공간을 분리하는 데 활용했다. 2 클래식한 찬장 벽 장식과 어우러지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조명 '아돌로' 역시 피에트로의 디자인 작품. 3 공간 구조를 활용해 냉장고나 수납장을 벽면에 수납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싱크대 옆 기동차림 뒤어나온 벽면은 불릭이 수납장으로 표면을 덮게 발리는 시멘트로 마감, 진짜 벽처럼 보인다. 4 집주인 아드리아노와 실비아의 글라스 컬렉션 오브제. 원래 갖고 있던 것인데 이 집에 잘 어울린다. 5 아파트 개조를 담당한 디자이너 피에트로 루소. 그와 동생이 첫눈에 반한 창문에서 포즈를 취했다. 6 욕실 세면대 역시 피에트로 루소가 직접 디자인, 제작했다. 직선적인 디자인, 블랙 컬러를 사용해 1930년대 모던 클래식 느낌을 표현한 것. 불릭 마블은 주방 가구 상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7 자연의 패턴을 도입한 다이닝 룸 테이블은 꽃과 열매 등을 올려놓으면 서정적인 느낌이 연출 더해진다고. 테이블 역시 피에트로 루소 디자인이다. 8 아파트 내부에 잘 보존된 벽도 장식. 아르누보의 절제된 곡선미와 우아함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블랙 대리석을 사용해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충분히 표현한 욕실 디자인. 이처럼 청문으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한층 빛을 발한다.